

## SPACE(공간) 잡지 6월호 발간...'이우환 공간'을 주목하다

특집으로 국내 처음으로 이우환 이름을 단 미술관 '이우환 공간' 다뤄

안창현 기자

2015.05.22 18:37:12



▲571호 표지.

CNB 미디어(CNB 뉴스, CNB 저널)가 발행하는 건축문화예술 월간지 SPACE(공간) 6월호(통권 571호)가 발간됐다.

이번호 특집 섹션에선 '이우환 공간으로 부산과 조용하다'를 주제로 지난 4월 10일에 개관한 '이우환 공간'을 주목했다. '이우환 공간'은 일본 나오시마에 있는 이우환 미술관에 이어 작가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운 두 번째 전시장이다.

국내 최초로 이우환의 이름을 달게 된 만큼 이곳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상당하다. 애초 부산시민 공원 내 미술관 건립을 추진했던 계획을 바꿔 시립미술관 별관이 되기까지 5 년이 걸렸다. 대구에서도 이우환 미술관을 짓기 위해 공을 들였지만, 예산상의 이유로 지난해 말 무산되었다. 이우환 컬렉션을 소장한 광주시립미술관의 움직임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뒤늦게 부산이 패권을 잡은 것이다.

실제 드러난 '이우환 공간'은 다른 전시장과 달리 작가가 공간 설계부터 디자인까지 직접 참여해 공간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 되도록 했다. SPACE(공간)는 1969 년부터 그의 글과 작업을 주목하며, 특집을 기획해 모노파에 대한 그의 분석과 대담을 전했다.

그의 작업과 공간의 관계를 주제로 진행한 이우환과 우정아(포스텍 조교수)의 대담과 '이우환 공간'이 완공되기까지의 과정,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조일상(부산시립미술관장)의 인터뷰를 소개한다. 또한 이번호에는 '이우환 공간'과 SPACE 에서 소개된 이우환의 아카이브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특집\_ 이우환 공간. ©윤준환